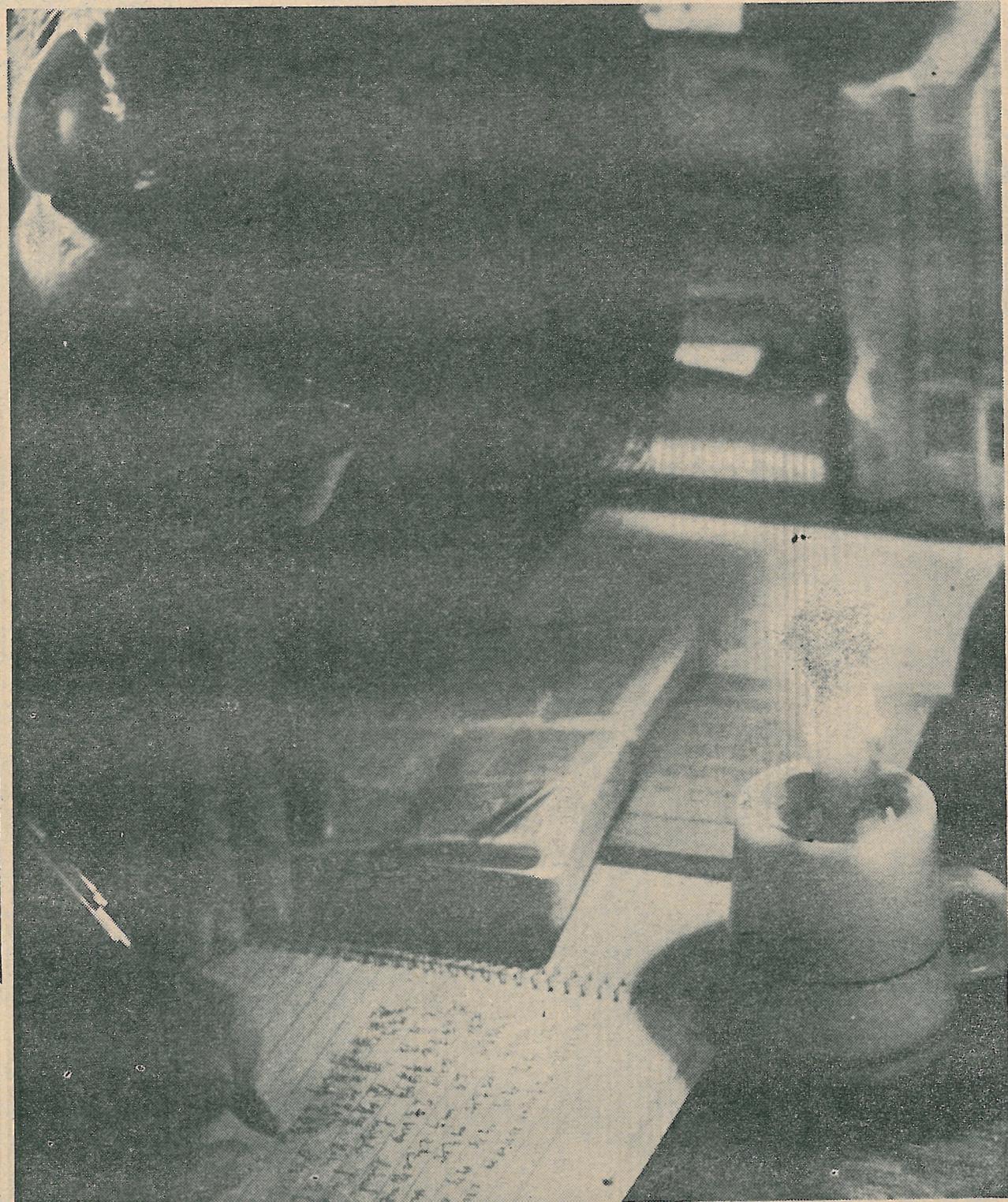


# 배움의 빛이 터져 솟아오를 때 ...



# 힘찬 깃발을 드높이 올려라

는 곳 거두어 진 열매가  
다시 씨앗으로 뿐만지는 곳  
그 뜻, 그 사상, 그 교통이 자라  
힘찬 짓발을 드높이 올릴 때  
걸은 없이도 길을 열며  
결실의 복을 더욱 뜨겁게 두드리며  
우, 새 역사의 불을 밝힌다.

부처님의 뜻이 자리를 잡아서  
일흔 다섯의 나이테  
그 뜻은 자라 거례의 가슴에서  
눈에서 지혜의 길을 열었고  
깨알처럼 익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  
밥을 낮으로 설여놓은  
저 터기자고 늘 풀한 통곡의 가족이여  
도시에서도 농촌에서도  
혹은 어느 나라 어느 곳에서도  
배울의 빛이 더져 솟아 오를 때  
우리의 뿔뿔을은 뿐만이 되고  
우리의 꿈은 꽂이 된다.

(新)  
(春)  
(頌)  
(詩)

義  
弘

# 기구·실내장식 유리색상





